

수형자들의 기질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의 매개효과

장 지 윤

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경 순

미네소타대학교
둘루스캠퍼스 교육학과

장 은 영[†]

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아동기의 외상경험과 기질적 특성,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가 교도소 수형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서울,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에 위치한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총 21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아동기 외상경험과 기질적 특성 중 하나인 행동활성화체계(BAS)가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를 거쳐서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최종 144명의 자료에 대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변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 판단력은 예상과는 달리,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다만, 행동활성화체계의 보상민감성이 높을수록 도덕 판단력이 높았고 도덕 판단력은 죄책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여서, 도덕 판단력은 보상민감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은 공격성과 충동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죄책감은 낮았으며, 이는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여서, 정서적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죄책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심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충동성을 예측하여서, 방임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심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일치점 및 매개요인들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격성, 충동성, 아동기외상, 행동활성화체계, 도덕판단력, 도덕정서, 수형자

[†] 교신저자: 장은영,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Tel: 031-560-2656, E-mail: jangmean@hanmail.net

2013년 7월, 한 1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자수하기 전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 글을 남겼다. 여기에는 살해 당시 자신이 죄책감과 슬픔, 분노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살해된 여성을 조롱하는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2013. 07. 11, 문화일보). 이와 유사한 사건들까지 포함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범죄행동의 이면에는 빈약한 죄책감, 공감능력이나 도덕적 판단력의 결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2014. 01. 25, 중앙일보). 그러나 범죄자들의 실제 도덕적 판단능력이나 도덕 정서의 수준을 살펴본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그들의 범법 행위 예언지표를 성격특성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박은영, 홍상황, 정상문, 김영환, 2002; 정유희, 안창일,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 행동으로 인해 형기를 복역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도덕 정서와 도덕 판단력이 이들의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재범 집단이 초범 집단에 비해 충동적인 경향성이 유의하게 더 높고(정유희, 안창일, 2004), 살인,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자가 절도범죄자보다 충동성이 더 높으며 공격행동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조은경, 1997)을 입증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이들의 반복되는 문제행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변인으로 공격성과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즉, 수형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에 도덕 판단력 및 도덕 정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부가하여 아동기 외상경

험 및 기질적 특성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도덕 정서와 도덕 판단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도 탐색하였다.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가 공격성 및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도덕성이란 무엇이며 도덕성 혹은 그와 공변하는 요소들이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낮추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발달 이론과 연구들은 도덕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는데, '옳고 그름을 개념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 인지적 요인, 옳고 그름을 포함하는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동기화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 및 자부심 등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요인,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는 유혹에 부딪혔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하는 행동적 요인'이 그것이다(Shaffer, 2002/2005: 670쪽에서 인용).

위의 세 요소 가운데 인지적 요인은 문용린(2011)이 제안한 도덕 판단력과 관련이 깊다. 문용린(2011)은 도덕성을 도덕과 관련된 사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도덕성의 발달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인 수준에서 도덕 판단의 발달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도덕성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도덕성의 인지적인 측면은 발달 단계를 거치며 주로 도덕 판단력 혹은 도덕지능이라고 불리는데,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도덕 판단력은 품행문제(백혜정, 이순목, 2003), 공격행동에 대한 허용(최지영, 허유성, 2008) 및 범죄여부(Stams et al., 2006)와 의미 있게 관련되는 점을 보였다.

최근에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 대하여 정서적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도덕적인 인지적 판단 수준 이외에도 정서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안정 등이 도덕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백혜정, 이순목, 2003). 특히 도덕 판단 수준보다도 도덕 정서(정서적 공감, 죄책감)가 도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결과(이지영, 2011)를 통해 볼 때, 인지적인 측면만으로는 도덕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도덕성 혹은 도덕적 행동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정서로 죄책감과 수치심이 연구되어 왔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자기 의식적 정서의 일부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스스로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이다. Tangney와 Dearing(2002)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같은 정서를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게 되고 이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여기서 죄책감은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인정함으로써 유발되는 정서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내면화된 도덕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가해 행동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하지만 수치심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유발되는 정서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며 결핍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과 더 관련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송경희, 이승연, 2010; 한세영, 2007).

도덕적 행동과는 독립적으로,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들도 도덕 정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례로 한세

영(2007)은 초기 청소년들의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수치심이 클수록, 죄책감은 작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았다. 국외 연구에서도 도덕 정서 중 수치심은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죄책감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게 하고 공감적으로 염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Stuewig, Tangney, Heigel, Harty, & McColskey, 2010).

아동기 외상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가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도덕 판단력이나 도덕 정서 이외에도 수형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데에도 목적을 두었고, 아동기 외상경험 그리고 행동활성화체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심리적 외상은 자신 및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적인 안녕을 위협할 만한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외상 이론에서는 아동기 외상에 대해 아동기에 부모 혹은 주양육자에 의해 학대나 방임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에서 이러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여러 정신과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인지 및 정서, 행동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철은, 현명호, 2003; Swogger, You, Cashman-Brown, & Conner, 2011; van der Kolk, 2005).

특히 아동기 외상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

격성, 충동성과도 관련성이 높은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된 바 있다. 이지영과 손정락(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로 인한 정서적인 외상경험은 불안정 애착수준에 영향을 주고,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표상이나 욕구불만을 포함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에 영향을 주어 이후 자신의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였다. 김지연과 김광웅(1999)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비계획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경향을 보이며,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집중하여 몰입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등의 충동적인 행동문제를 드러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Swogger, You, Cashman-Brown과 Conner(2011)는 266명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신체 학대 경험과 공격성, 자살 시도 간의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 신체 학대 경험과 공격성은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학대 경험이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경험에 더하여 기질적 특성의 하나로 간주되는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가 수형자들의 공격성 및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간 행동의 조절과 통제를 설명하는 관점 가운데 유인물을 향해 다가가는 뇌 체계와 혐오하는 유인물을 피할 수 있도록 행동을 멈추는 체계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 관점에서는 바라는 유인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체계를 행동활성화체계(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라 부르며 진행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여 혐오적인 결과를 예방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행동억제체계(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라 한다(김교현,

김원식, 2001, 20쪽에서 인용).

이러한 정의를 보면, 행동활성화체계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장애물이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인물로 나아가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행동활성화체계는 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보상민감성(Reward Responsiveness), 바라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강한 열망과 지속을 뜻하는 추동(Drive), 보상이 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접근 경향성을 의미하는 재미추구(Fun Seeking)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요소들의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약물 및 물질 남용을 포함하는 품행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Hundt, Kimbrel, Mitchell, & Nelson-Gray, 2008), 행동활성화체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표출과 공격성 수준도 높아지고(Harmon-Jones, 2003; Smits & Kuppens, 2005) 공격성이 더 증가하였다(조지영, 2011).

아동기 외상과 행동활성화체계가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에 미치는 효과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아동기 외상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는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도덕성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아동기 외상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가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화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아동기 외상경험이나 기질적 특성은 도덕 정서나 판단력이 적절히 발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무엇을 학습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도덕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등 도덕성 발달에 있어 유아기에 부모와 주고받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문용린, 2011). 외상경험과 도덕 판단력의 관계를 직접 알아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김효진(2003)과 오갑례(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는 자녀의 도덕 판단력의 수준이 높았으나, 거부적이고 통제적일 때는 도덕 판단력 수준이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Hoffman(1970)은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유사한 애정철회법(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관심이나 애정, 인정을 철회하는 방법)과 권력행사법(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 분노, 원망을 유발할 수 있는 강압적인 명령, 신체적 제약, 때리기, 특권 철회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이들은 도덕적 발달에 의미 있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한편 아동기 외상이 도덕 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용택과 이은경(2012)은 어머니에 의한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죄책감이 증가하며, 이는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이정숙과 김은경(2007)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임이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겪으면 자녀는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여기며 이를 스스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절과 거부로 지각하여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기질적인 특성 역시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쉽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나 죄의식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구슬기, 2010; Asendorpf & Nunner-Winkler, 1992). 즉, 기질적으로 예민하거나 두려움이 많은 경향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대의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에 비해 도덕의 내면화와 관련된 체계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하며, 양심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Fowles & Kochanska, 2000; Kochanska, 1995). Stifter, Cipriano, Conway와 Kelleher(2009)는 기질적으로 억제된 아동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의식적 통제를 하는 편이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게 하고 이는 더욱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조은영(2009)은 두려움이 많은 아동일수록 나쁜 행동을 한 후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므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내적인 각성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연구의 가설

선행연구들을 보면, 기질적 특성과 아동기 외상 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가 공격성 및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지지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기질적 특성의 한 요소인 행동활성화 체계 그리고 이들의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하고, 이 요소들이 도덕 판단력과 죄책감 및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 가운데 일부 경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직접 지지된 바 있지만, 일부 경로를 직접 검증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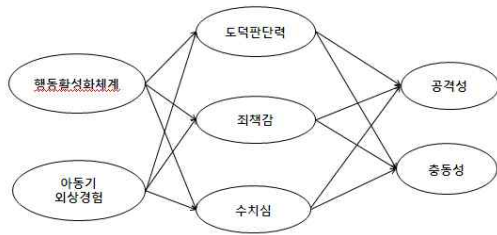


그림 1. 수형자의 공격성 및 충동성에 대한 연구가설 모형

요소를 중심으로 모형의 세부적 내용과 경로 설정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으며, 그림 1에 가설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기 외상 경험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높이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직접 검증되고 지지된 바 있어서, 이 경로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들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검증을 통해 지지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아동기 외상 경험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지지된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아동기 외상 경험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거쳐 충동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탐색적으로 효과를 검증하였다.

행동활성화체계가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도덕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행동활성화체계는 공격성 및 충동성과 연결되고 행동활성화체계와 반대로 작동하는 행동억제체계가 죄의식이나 죄책감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행동활성화체계가 도덕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공격성 및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비하여 도덕 판단력의 효과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다소 빈약하다. 하지만 아동기 양육이 도덕 발달에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와 행동억제체계가 가치체계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외상 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가 도덕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공격성이나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에 위치한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행동활성화체계, 아동기 외상경험, 도덕 판단력, 도덕 정서, 공격성, 충동성이 포함된 질문지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경비등급별 교정시설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자도 조사 및 징벌자부터 원만한 교육대상자까지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앞서 교도관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수형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질문지 배부는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수형자들에게 한하여 이루어졌다. 교도관들이 질문지에 응답하기 위한 간단한 지시사항을 설명한 후에 수형자들이 응답하였다. 교도관의 입회하에 교정시설 내 교육장, 거실, 조사실, 작업장 등에서 자기보고 형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혼자 또는 여럿이 모여 질문지의 문항을 읽고 응답하였다. 여러 명이 함께 응답하는 경우에도 교도관의 지휘와 감독을 통해 다른 이의 응답을 보거나 서로 논의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며,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1시간 정

도가 소요되었다. 총 210부의 질문지가 수거되었고, 이 가운데 남성이 208명(99%)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서, 여성 두 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무성의하게 응답하였다고 간주된 10명의 응답을 제외하였고, 결측치가 포함된 54명이 제외되어서 최종 14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행동활성화체계(BAS)

연구 대상자의 기질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White(1994)가 제작하고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대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동억제체계(Behavior Inhibition System: BIS)는 단일 척도로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 Activation System: BAS)는 추동(Drive), 보상민감성(Reward responsiveness), 재미추구(Fun seeking)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4문항, 5문항, 4문항씩 4점척도('1'부터 '4'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에 따라 행동활성화체계의 하위요인인 추동, 보상민감성, 재미추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추동, $\alpha = .87$, 보상민감성, $\alpha = .85$, 재미추구, $\alpha = .78$ 이었으며,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추동, $\alpha = .77$, 보상민감성, $\alpha = .66$, 재미추구, $\alpha = .70$ 이었다. 또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서는 세 요소별로 각각 두 개의 덩이(parcel)를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

수행자들의 아동기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경(2008)이 구성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 경험했던 학대행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 당 7문항씩 5점 척도(1점 '전혀 없음'부터 5점 '1달에 한 번 이상'까지)로 평정하며,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의해 '방임' 문항 중 1번과 6번 문항을 제외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방임, $\alpha = .67$, 신체적 학대, $\alpha = .83$, 정서적 학대,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의 표집에서는 방임, $\alpha = .81$, 신체적 학대, $\alpha = .92$, 정서적 학대, $\alpha = .90$ 이었다. 또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서는 세 요소별로 각각 두 개의 덩이(parcel)를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도덕 판단력

도덕 판단력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2011)이 개정한 한국판 도덕 판단력검사(KDIT)의 간편형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세 개의 도덕적 딜레마('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황에 포함된 3가지 질문(주인공의 입장에서 행동 선택, 12개 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정, 중요도에 따른 12개 문항의 순위 선택)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피험자들은 먼저 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며, 각 문항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한 후('1'부터 '5'까지), 앞서 제시된 12개의 문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4개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게 된다. DIT 점수는 컴

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채점되며 채점 결과는 P(%)¹⁾점수와 D점수 등으로 제공되나, 본 연구에서는 P(%)점수를 사용하였다. P(%)점수는 Kohlberg의 도덕발달 5단계 및 6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에 피험자가 매긴 순위를 활용하여 계산된다. 즉,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습 이후 수준에 해당하는 5단계 및 6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에 중요성을 부여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따라서 피험자가 12개의 진술문 중 5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최고로 평정한 경우 P(%)점수는 높아진다. P(%)점수는 0~95 범위의 수치로 나타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변량구조분석에서는 P점수가 측정변수로 사용되었다.

도덕 정서

도덕성과 관련된 정서경험 중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Tangney, Dearing, Wagner와 Gramzow(2000)가 개발하고 송수민(2007)이 번안한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며 자의식적 정서를 나타내는 수치심, 죄책감, 외면화, 분리/무관심, 자부심 등의 문항에 각각의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1'부터 '5'까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중 수치심과 죄책감 척도만을 채택하여 각 8문항씩, 총 16 문항을 사용하였다. 송수민(2007)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수치심, $\alpha = .78$, 죄책감, $\alpha = .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수치심, $\alpha = .76$, 죄책감, $\alpha = .92$ 였다. 또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서는 세 요소별로 각각 두 개의 덩이(parcel)를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수형자들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 version: A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1'부터 '5'까지)로 평가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alpha = .91$ 이었다. 총 27문항이며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하위척도를 하나의 덩이(parcel)로 구성하였고, 최종 네 개의 덩이(parcel)가 공격성의 측정변수로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되었다.

충동성

수형자들의 충동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atton, Stanford, Barratt(1995)에 의해 최종 개정된 'Barratt 충동성 검사-11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를 기초로, 허심양, 오주용 및 김지혜(2012)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

1) P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문용린(2011)의 권고를 따랐다. 즉, P점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원자료를 서울대학교 도덕심리 연구실로 송부하여, 개인별 P점수 자료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자료를 병합하는데 필요한 개인별 무작위번호만이 사용되었다.

판 Barratt 충동성 검사-11'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인지 충동성(8문항), 운동 충동성(11문항), 무계획성 충동성(11문항)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1'부터 '4'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허심양, 오주용 및 김지혜(2012)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 역시 $\alpha = .80$ 이었다. 총 30문항이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하위척도를 하나의 덩이(parcel)로 구성하였고, 최종 세 개의 덩이(parcel)가 공격성의 측정변수로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

행동활성화체계 그리고 아동기 외상경험이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를 거쳐 수행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Lisrel 8.52판을 이용하여 공분산행렬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에서 각 척도들의 비중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본래 하나의 변수로 측정되는 도덕 판단력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개의 덩이(parcel)들을 구성하여 공분산행렬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관찰변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PASW version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수행자의 공격성 및 충동성과 관련된 것이라 가정된 변인들의 상관계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한 변인과 공격성 및 충동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충동성만이 죄책감, $r = -.26, p < .01$, 수치심, $r = .17, p < .05$, 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죄책감은 공격성과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r = -.15, p = .10$. 다음으로, 독립변인으로 가정된 변인들과 공격성 및 충동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공격성은 추동, $r = .36, p < .001$, 보상민감성, $r = .43, p < .001$, 재미추구, $r = .55, p < .001$, 신체적 학대, $r = .38, p < .001$, 정서적 학대, $r = .39, p < .001$, 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충동성은 보상민감성, $r = .27, p < .01$, 재미추구, $r = .37, p < .001$, 방임, $r = .22, p < .01$, 신체적 학대, $r = .27, p < .01$, 정서적 학대, $r = .30, p < .001$, 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 변인들과 독립변인으로 가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봤을 때, 도덕 판단력은 추동, $r = .20, p < .05$, 보상민감성, $r = .21, p < .05$,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죄책감은 정서적 학대, $r = -.19, p < .05$, 와만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수치심은 방임, $r = .26, p < .01$, 신체적 학대, $r = .22, p < .01$, 정서적 학대, $r = .22, p < .01$, 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찰변수들이 가정된

표 1. 변인들의 상관관계(n = 144)

	M(SD)	1	2	3	4	5	6	7	8	9	10	11
1 공격성	56.1(15.85)	1.00										
2 충동성	63.0(9.37)	.59	1.00									
3 도덕 판단력	26.1(15.54)	.01	.01	1.00								
4 죄책감	30.78(8.65)	-.15	-.26	.35	1.00							
5 수치심	20.24(7.19)	.09	.17	.08	.37	1.00						
6 추동	9.04(2.58)	.36	.07	.20	.13	.09	1.00					
7 보상민감성	11.6(2.76)	.43	.27	.21	-.16	-.05	.60	1.00				
8 재미추구	8.42(2.4)	.55	.37	.09	-.07	.13	.61	.58	1.00			
9 방임	10.34(5.02)	.16	.22	-.07	.01	.26	.08	.12	.08	1.00		
10 신체적 학대	11.22(6.23)	.38	.27	-.14	-.14	.22	.08	.09	.20	.65	1.00	
11 정서적 학대	10.65(5.71)	.39	.30	-.14	-.19	.22	.07	.06	.24	.61	.89	1.00

$r > .15, p < .10$; $r > .17, p < .05$; $r > .22, p < .01$; $r > .30, p < .001$.

죄책감 = 도덕 정서의 죄책감, 수치심 = 도덕 정서의 수치심, 추동 = 행동활성화체계의 추동, 보상민감성 = 행동활성화체계의 보상민감성, 재미추구 = 행동활성화체계의 재미추구, 방임 = 아동기 외상경험의 방임, 신체적 학대 = 아동기 외상경험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 아동기 외상경험의 정서적 학대.

잠재변인에 부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해 공변량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chi^2(196) = 275.79, p < .001$; $RMSEA = .06$; $GFI = .85$, $CFI = .97$, $NFI = .92$, $NNFI = .96$. 모든 요인부하량은 .41 이상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및 표 1에 제시된 영차상관관계 및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구조모형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각 매개변인별로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 판단력은 공격성이나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서, 아동기 외상경험과 기질적 특성의 효과를 매개하는 요소로 볼 수 없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도덕 판단력과 죄책감이 관련될 수 있으며 행동체계는 도덕 판단력과 관련되는 점이 발견된 바 있고, 본 연구의 상관관계에서도 도덕 판단력과 죄책감 및 보상민감성이 유의한 상호상관을 보였다. 이에 보상민감성에서 도덕 판단력을 거쳐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매개 경로를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대로, 1단계에 도덕 판단력을 먼저 투입하고, 2단계에 행동활성화체계를 투입했을 때, 보상민감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13, t = -1.59$. 따라서 이 매개 경로를 구조 모형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죄책감은 공격성 및 충동성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학대 변인이 죄책감 및 공격성,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정서적 학대에서 죄책감을 거쳐 공격성과 충동성으로 연결되는 두 매개 경로를 가정하였다. 1단계에 죄책감을 투입하고, 2단계에 아동기 외상경험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정서적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 $\beta = .26$, $t = 1.45$,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22$, $t = 1.21$. 따라서 이 두 가지 매개 경로를 구조 모형에 포함시켰다.

수치심은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세 가지 아동기 외상경험은 모두 수치심 및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아동기 외상경험에서 수치심을 거쳐 충동성으로 연결되는 매개 경로를 가정하였다. 1단계에 수치심을 투입하고, 2단계에 아동기 외상경험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방임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4$, $t = 0.39$. 따라서 이 매개 경로를 구조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가정된 모형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의 각 세 요소들은 외생변인들(exogenous variables)로, 도덕 판단력, 죄책감, 수치심, 공격성 및 충동성은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s)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외상경험의 세 요소간, 행동활성화체계의 세 요소간, 수치심과 도덕성간, 공격성과 충동성간 상호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구조모형에 대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설명력과 적합도 지수가 일정한 기준(예, $RMSEA < .07$)에 이를 때까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값에 근거하여 경로를 하나씩 자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유화된 경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재미추구 경향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 신체적 학대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이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앞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에, 경로계수의 효과는 표 2에 제시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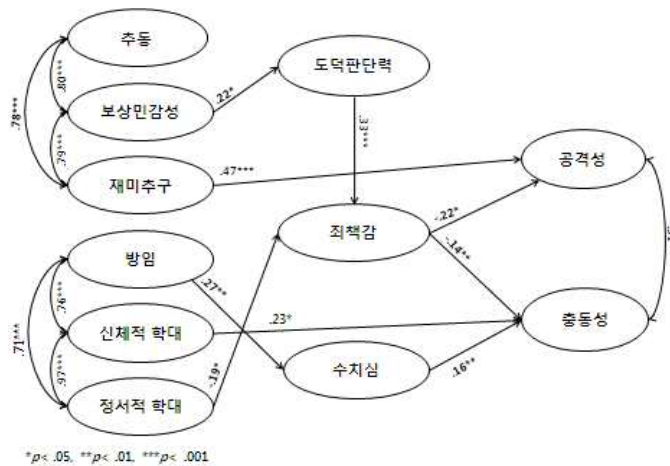


그림 2. 수행자의 공격성 및 충동성에 대한 구조모형

표 2. 구조모형의 총효과 및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

경로	총효과	간접효과
보상민감성 → 도덕 판단력	.22*	
보상민감성 → 죄책감	.07*	.07*
보상민감성 → 공격성	-.02	-.02
보상민감성 → 충동성	-.03	-.03
재미추구 → 공격성	.47***	
방임 → 수치심	.27**	
방임 → 충동성	.10*	.10*
신체적학대 → 충동성	.23*	
정서적 학대 → 죄책감	-.19*	
정서적 학대 → 공격성	.07*	.07*
정서적 학대 → 충동성	.03	.03
도덕 판단력 → 죄책감	.33**	
도덕 판단력 → 공격성	-.06	-.06
도덕 판단력 → 충동성	-.13*	-.13*
죄책감 → 공격성	-.16*	
죄책감 → 충동성	-.38**	
수치심 → 충동성	.37**	

* $p < .05$ ** $p < .01$ *** $p < .001$

다. 전체 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양호하였고($\chi^2(233) = 143.41, p < 0.001; RMSEA = 0.07; CFI = 0.94, NFI = 0.88, NNFI = 0.93, GFI = 0.81$), 충동성의 32%, 공격성의 24%, 도덕 판단력의 5%, 수치심의 7%, 죄책감의 15%가 본 연구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도덕판단력은 기질이나 아동기 외상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덕판단력은 아동기 기질이 죄책감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였다. 즉, 행동활성화체계의 보상민감성이

도덕 판단력을 거쳐서 죄책감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는데, $b = .17, t = 2.28, p < .05$, 보상민감성이 높을수록 도덕판단력이 높고, $\beta = .22, t = 2.37, p < .05$, 도덕판단력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았다, $\beta = .33, t = 4.30, p < .001$. 그러나 이러한 보상민감성의 효과가 도덕판단력을 거쳐 공격성이나 충동성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2, t = 1.66, p > .10$,

죄책감은 정서적 학대의 효과를 매개하였다. 즉, 정서적 학대가 죄책감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는데, $b = .05, t = 2.01, p < .05$, 정서적 학대가 높을수록 죄책감이 낮았고, $\beta = -.19, t = -2.39, p < .05$, 죄책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았다, $\beta = -.22, t = -1.97, p < .05$. 죄책감이 낮을수록 충동성도 낮았지만, $\beta = -.14, t = -2.70, p < .01$, 정서적 학대가 죄책감을 거쳐 충동성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b = .04, t = 1.50, p < .10$. 또한 죄책감은 도덕판단력이 충동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매개하는 점도 보였다, $b = .02, t = 2.01, p < .05$,

수치심은 방임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였다, $b = .04, t = 1.97, p < .05$. 아동기 방임 경험이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았고, $\beta = .27, t = 2.60, p < .01$, 수치심이 높을수록 충동성도 높았다, $\beta = .16, t = 2.61, p < .01$.

반면에 행동활성화체계의 재미추구경향과 아동기 외상 경험 가운데 신체적 학대 경험은 직접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미추구경향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beta = .47, t = 5.16, p < .001$, 신체적 학대는 충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 = .23, t = 2.21, p < .05$.

논 의

본 연구는 이미 범죄행동에 대해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특히,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인 도덕 판단력 그리고 정서적 측면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 아동기 외상경험과 기질적 특성이 도덕성의 인지 및 정서적 요소들에 의해서 매개되어 공격성과 수치심에 효과를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죄책감은 공격성 혹은 충동성을 낮추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개요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나타났다. 이미 국내외 연구자들도 죄책감이란 정서는 자신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유발되는 경험하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일컫는 말로, 즉각적으로 유발되는 도덕 정서는 도덕 판단력이나 도덕 추론에 영향을 미치고(Hoffmann & Baumert, 2010), 충동성 및 대인관계 괴롭힘과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이 강조된 바 있다(이수경, 오인수, 2012). 구체적으로는 아동기 외상, 특히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면 이러한 죄책감을 덜 경험하게 되며, 이는 수행자들의 공격성을 높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죄책감에 미치는 효과(이은택, 이은경, 2012; 이정숙, 김은경, 2007) 그리고 죄책감이 다양한 공격행동 혹은 비도덕적 행동의 지표들에 미치는 효과(한세영 2007, Tangney & Dearing, 2002)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 바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관된다.

도덕 판단력은 수행자들의 공격성이나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도덕 판단력이 품행문제 및 범죄행동과 관련되는 점

을 보인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백혜정, 이순목, 2003; Stams et al., 2006), 공격행동에 대한 허용과 연관되는 점도 발견된 바 있으나(최지영, 허유성, 2008), 공격성 및 충동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또한 도덕 판단력은 아동기 외상경험이나 기질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아동기 외상이나 잘못된 양육은 도덕성의 발달을 저해할 것으로 추론하였지만,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도덕 판단력과 매우 작은 영차 상관관계, $r = -.14, p > .10$, 만을 보였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 태도가 도덕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는데(김효진, 2003; 오갑례, 2002),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기 외상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는 수행자들의 도덕 판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덕 판단력도 공격성이나 충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덕 판단력은 죄책감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도덕 판단력은 직접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낮추기보다는 죄책감을 높여 간접적으로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표 2의 간접효과 참조). 선행연구에서도 도덕 판단력은 죄책감과 관련되었고(이지영, 2011; Hoffmann & Baumert, 2010), 죄책감을 경험하기에 앞서 귀인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선행하는 점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며(Gibbs, 1991: 홍성훈, 2000, 52쪽에서 재인용), 도덕적 판단이 도덕 민감성과 같은 정서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인 결과(서미옥, 2007)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와 일관되며, 도덕 판단력과 죄책감은 공

변하고, 이 두 요소 가운데 선행하는 것은 인지적 요소인 도덕 판단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다만, 인지적 측면인 도덕 판단력과 정서적 측면인 죄책감 가운데 무엇이 선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재확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 판단력이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더 양호하여 이 경로가 최종 모형에 포함되었지만, 이는 자료에 근거한 탐색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표본에서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가능한 관계들을 설정하고, 이 경쟁 모형들을 비교하여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다.

도덕 판단력은 보상민감성 및 추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이 가운데 보상민감성이 도덕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구조모형에서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민감성이 지니는 양면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거나 무엇인가를 바라는 열망이나 지속성이 높으면, 장애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물을 추구하며 이는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경향을 높인다. 예로, 누군가 자신을 화나게 하면,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며, 공격적인 행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보상들(후련함, 상대의 고통 등)에 반응하므로,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보상민감성이 도덕 판단력과 연결되면,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죄책감을 경험하며, 이는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추론해 보면, 범죄행동으로 형기를 복역할 정도로 문제행동을 보인 수형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여러 결과들을 생각하도

록 돕고, 특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죄책감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부가적인 분석에서 행동억제체계는 도덕 판단력이나 공격성 및 충동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억제체계가 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구슬기, 2010; Asendorpf & Nunner-Winkler, 1992)과 모순된다. 선행연구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된 데 비해서, 본 연구는 성인의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연구 대상이 수형자라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경우에는 억제체계가 공격성과 충동성을 낮추는 기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도 범죄행동의 이력이 없는 일반성인의 결과와 비교하여 재확증할 필요가 있다.

수치심도 대표적인 도덕 정서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는데, 본 연구에서 수치심의 효과는 충동성에 한하여 지지되었다. 즉, 수치심은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방임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심이 매개하였다. 즉, 수형자들 가운데 어린 시절 경험한 방임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고, 이는 충동적인 경향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이 공격성, 적의성, 흥분성에 영향을 미치며(한세영, 2007), 방임과 정서적 학대는 이후 수치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관된다(이정숙, 김은경, 2007). 다만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적 학대 및 공격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충동성과 공격성, 죄책감과 수치심 및 아동기 학대경험을 모두 모형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연합강도를 지니는 관계들만이 최종 경로로써 지지된 점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지지된 수치심의 효과는, 흔히 '넌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는 질책에 대해 수긍하며 행동을 반성하는 상황과는 정반대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수치심을 경험하고, 이후 공격성이나 충동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잠재력이 낮아지는 과정도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및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수치심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잠재력을 높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도덕 정서로서의 수치심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과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경험하는 정서인데 비해,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경험하는 정서로 정의되며, 문항의 내용도 자기(self) 존재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죄책감을 경험할 때와 달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게 되면, 이후 충동성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 내용과 일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수치심이 세 가지 유형의 아동기 외상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기제도 설명해 준다. 즉, 김은경(2009)이 이미 제안했던 바와 같이,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와 같은 아동기 외상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은 거절받고 거부된 존재이며,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게 되므로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높하게 된다. 따라서 죄책감에 비해서 수치심은 아동기 외상에 의해서 유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또한 아동에 대한 훈육

에서 중요한 원칙도 다시 일깨워준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동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나 비난은 오히려 수치심을 높이는 악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및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상관의 강도나 방향이 일반 성인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리라고 추론할 수 없으므로, 결과의 일반화가능성에 제약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수형자들의 범죄행동과 관련되는 지표인 공격성 및 충동성을 다루는 데 있었으므로, 이에 적합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럼에도 응답에 동의한 수형자들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했던 수형자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결과는 독립된 수형자 집단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성인들에게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변량구조분석을 사용하였으므로, 결측치가 존재하는 이들은 대부분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결측치는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즉,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은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다룬 이 두 요소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문항들에 대한 응답방법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문항들은 특정한 사례나 상황을 기술하고, 그 때 경험하는 정서나 선택하는 대안을 고르도록 구성되었는데, 이는 나머지 리커트형 응답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인식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일반 성인이 아닌 수형자들에게서 응답을 완료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없는 표집에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일부 문항에서 응답자들의 신뢰도가 다소 저하되는 점이 나타났다. 특히 방임의 두 문항은 일반 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문항-전체간 신뢰도와 요인부하량을 드러낸 것과 달리 본 연구의 표집에서는 그 값이 상당히 작다. 척도가 본래 일반적이며 평균적인 대상자들을 통해 개발된 데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 분석에서 이 두 문항들은 제외되었으며, 이외의 통계지표들을 통해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담보되었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수형자에게 적합하였다고 간주하는데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 자료를 부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범죄유형별로 각 외상을 경험한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도덕 판단력이나 죄책감 및 수치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에는 표집수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범죄유형별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구조모형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범죄유형별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구조모형을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형자로, 이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무성의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결측치가 포함된 이들을 제외하였지만, 결측치를 포함한 54명의 피험자 역시 적은 수가 아니므로, 장래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증할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된 모형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향후 다양한 표집에 대

해서 재검증되고, 확증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구슬기 (2010). 유아의 성 및 기질과 부모의 훈육 방식이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경 (2009).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수치심, 죄책감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중재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5), 45-74.
- 김지연, 김광웅 (1999). 아동의 충동성과 학대 경험 및 기질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4(1), 107-126.
- 김효진 (2003). 고교생의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일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용린 (2011).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한국판 도덕판단력 검사의 개정 및 재표준화. 서울: 집문당.
- 문화일보 (2013. 07. 11). '10대 오원춘' 살인한 날 "맘 편하다...편하게 가자"
- 박은영, 홍상황, 정상문, 김영환 (2002). 수형자의 PAI 프로파일과 범법행위 예언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41-954.
- 백혜정, 이순목 (2003).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판단 및 행동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

- 심리학회지: 발달, 16(4), 135-153.
- 서미옥 (2007). 대학생의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구성요소의 경로분석. *교육학연구*, 45(3), 25-51.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도덕적 이탈 ·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갑례 (2002). 부모 양육 태도와 성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의 차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경, 오인수 (2012). 충동성, 공격성과 직접, 관계적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분석. *상담학연구*, 13(4), 2017-2032.
- 이용택, 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 이정숙, 김은경 (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 이지영 (2011). 중학생의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 정서적 변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 관계에서 불안장애와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 전철은, 현명호 (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6.
- 정유희, 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행자의 NEO-PI-R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25-740.
- 조은경 (1997).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30, 125-178.
- 조은영 (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지영 (2011). 소년원 남자 청소년의 불안과 공격성의 관계: 행동활성화체계(BAS), 행동억제체계(BIS)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일보 (2014. 01. 25). 남 해쳐놓고 “난 근사해” 왜감...내 주위에도 혹시?
- 최지영, 허유성 (2008).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 및 관계적 공격행동 지각 유형에 따른 도덕판단력과 사회적 상호의존성. *청소년학연구*, 15(6), 171-196.
-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5(7), 17-33.
- 허심양, 오주용, 김지혜 (2012).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69-782.
- 홍성훈 (2000).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의과대학생의 도덕 판단력, 민감성, 행동선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sendorpf, J. B., & Nunner-Winkler, G. (1992). Children's moral motive strength and temperamental inhibition reduce their immoral behavior in real moral conflicts. *Child Development, 63*, 1223-123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Fowles, D. C., & Kochanska, G. (2000). Temperament as a moderator of pathways to conscience in children: The contribution of electrodermal activity. *Psychophysiology, 37*, 788-795.
- Gibbs, T. C. (1991). "Toward an Integration of Kohlberg's and Hoffman's Theories of Morality."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 Harmon-Jones, E. (2003). Anger and the behavioral approach syst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995-1005.
- Hoffman, M. L. (1970).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Hoffman, W., & Baumart, A. (2010). Immediate affect as a basis for intuitive moral judgement: An adaptation of the 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 *Cognitive and Emotion, 24*(3), 522-535.
- Hundt, N. E., Kimbrel, N. A., Mitchell, J. T., & Nelson-Gray, R. O. (2008). High BAS, but not low BIS, predicts externalizing symptoms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565-575.
- Kochanska, G. (1995).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s Discipline, and Security of Attachment: Multiple Pathways to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3), 597-615.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 768-774.
- Shaffer, D. R. (2005).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2에 출판)
- Smits, D. J. M., & Kuppens, P. (2005). The relations between anger, coping with anger, and aggression, and the BIS/BAS syst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783-793.
- Stams, G. J., Brugman, D., Dekovic', M., van Rosmalen, L., van der Laan, P., & Gibbs, J. C. (2006). The moral judgement of juvenile delinqu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697-713.

- Stifter, C. A., Cipriano, E., Conway, A., & Kelleher, R. (2009).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conscience: The moderating role of effortful control. *Social Development, 18*(2), 353-374.
- Stuewig, J., Tangney, J. P., Heigel, C., Harty, L., & McCloskey, L. (2010). Shaming, Blaming and Maiming: Functional links among the moral emotions, externalization of blame, an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91-102.
- Swogger, M. T., You, S., Cashman-Brown, S., & Conner, K. R. (2011). Childhood physical abuse, aggress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criminal offenders. *Psychiatry Research, 185*, 363-367.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Y: Guilford Press.
- Tangney, J. P., & Dearing, R. L., Wagner, P. E., & Gramzow, R. (2000).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3 (TOSCA-3)*.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van der Kolk, B. A. (2005).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Towards a rational diagnosis for chronically traumatized children. *Psychiatric Annals, 35*(5), 401-408.
- 1차원고접수 : 2014. 06. 17.
수정원고접수 : 2014. 09. 03.
최종게재결정 : 2014. 09. 05.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and Temperament
on Prisoners' Aggression and Impulsivity:
Mediational Role of Moral Judgement and Moral Emotion**

Ji-yun Chang	Kyoung-soon Lee	Eun-young Jang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University of Minnesota, Duluth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temperamental trait(Behavioral Activation System), moral judgment, and moral emotion on prisoners' aggression and impulsivity were examined. Of 210 prisoners also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moral judgment and moral emotio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l had a good level of fit with our data. The results of the mediation effects analysis were as follows: Contrary to our hypothesis, moral judgment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aggression and impulsivity of prisoners. However, reward responsiveness of BAS was associated with moral judgment, and moral judgmen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guiltiness. Therefore, moral judgment mediated the effect of reward responsiveness(BAS) on guiltiness. Moral emotion(guiltiness and shamefulnes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aggression and impulsivity. Also, the higher th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the lower the level of guiltiness, which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aggression and impulsivity. Additionally, as the level of neglect in childhood was higher, shamefulness was increased, and i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mpulsivity. Therefore, we concluded that guiltiness mediated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both aggression and impulsivity. Further, shamefulness mediated the effect of neglect during childhood on impulsivity. Specific result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Aggression, Impulsivity, Childhood Trauma,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Moral Judgement, Moral Emotion, Prisoners